

글: 김득수_Kim, Deuk-soo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한국 건축 백년대계 토론회 단상

A view after Korean Architecture 100-year-plan forum

<지나온 50년 나아갈 50년 '대한민국 건축 현실과 건축사의 미래진단'>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9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한국 건축 백년대계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 지식기반과 전문성 및 공공적 역할의 부족, 건축사의 위상 저하, 무임승차자로서의 행태, 업무속성상 본질은 공적 영역이나 실체는 사적 영역인 건축사 고유의 역할에 대한 딜레마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사의 전문성 제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훈련강화, 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홍보 강화, 건축 관련단체 및 외곽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정기적인 건축(학)계 관련 포럼 개최를 통한 이슈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대한건축사협회가 배타성을 벗어나 진정한 대한민국 건축계의 대표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혁경(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건축사는 시대에 따른 건축법의 변천과정과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대로 된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건축사의 권익은 건축사 스스로 지켜야 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바로 건축사 스스로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제해성(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실과 미래전략적인 관점에서 통계를 인용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체계적인 서비스업무표준 제정, 업무 범위의 세분화와 확대, 합리적인 보수부과기준 마련 등을 미래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구영민(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은 대학에서 바라 본 미래 건축사의 모습과 교육방향에서 미래 건축사의 존재를 사회 변동에 대한 지각 능력자로서 통합적 생태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조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미래의 건축교육은 산업사회 속에서 억압되었던 무의식적 자아를 찾아내고, 도전적이고 경쟁적이며 모험적이고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사고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강부성(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은 건축도시의 품질강화, 건축서비스의 혁신, 건축의 가치(성능)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건축의 신뢰성 강화, 공공/민간 건축문화기금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전영철(열린모임 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실태 및 생존전략에서 너무 낮은 설계대가, 수주경쟁에 따른 과도한 기획 및 계획비용의 지출, 국내 건설사업 발주의 대형화를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건축정책의 부재로 보았다.

김현진(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대한민국에 건축은 있다'라는 주제로 서두를 열면서 신진건축사로서 바라본 건축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건축대학 졸업생과 건축사의 과다 배출 그리고 급여 수준과 기회의 가능성 때문에 지역의 건축대학 졸업생들이 서울에 취업하면서 겪게 되는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 등 지방 건축사로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것들을 잃어가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건물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설계의 중요성과 건축 본연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 안정된 사회적 바탕과 건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지희(건설경제) 건축전문기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가 지난 50여 년간 건축을 우대해 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협회 등 업계가 발주처의 불합리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신문고나 두드릴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건축산업의 50년은 표준계약서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건축현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려는 시도와 노력은 좋았다. 그러나 건축사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은 여타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선에서 크게 진척되지 않았고, 지나온 50년을 바탕으로 나아갈 50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을 가까운데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협회가 회원들의 회비수입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건축사대회, 건축산업대전, 한옥교육, 건축창의교실, 영화제 등 정례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과 하나 되어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행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의 제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례로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참가후기가 있다. 아이가 참가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그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부모의 글이다. 이렇게 어린이를 교육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건축 발전의 50년을 내다보는 본보기라 여겨진다.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좋은 건축주가 많아져야 함은 당연하다. 앞으로는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생을 위한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에는 이미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 등 건축관련 교과목도 제시되어 있



는 상황이니 차제에 중학생을 위한 제대로 된 건축교육의 보급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DB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자재센터를 설립하여 협회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은 협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건축사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의 젊은 후배들을 위한 인큐베이팅도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 건축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도화한 법·제도·정책 연구가 우선 되어야 하며, 공공과 건축계가 함께 노력할 때, 건축사의 위상뿐 아니라 건축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상’이라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충고처럼, 한국 건축의 미래가 달라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우리 건축의 5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하여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해 새 지도부와 함께 한국 건축을 더욱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되기를 바란다. ■